

<서평>

Sacrifice scandaleux?

Sacrifice humains, martyre et mort du Christ

C. Grappe et A. Marx

Genève: Labor et Fides, 2008, 190p.

김선종*

기독교는 역사의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이다. 이러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특별히 구별되는 점은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 보편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복음서나 바울 서신 등 신약 성경이 예수의 죽음을 ‘인류의 죄로 인한’, ‘인류를 위한’ 속죄의 죽음(막 10:45; 고전 15:3; 히 9:26 등)으로 공식화한 것은 결국 예수를 속죄 제물로 이해하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의 죽음을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 탄생한 이후 오랜 세월을 통해 교리화되고 신학화되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반대로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의 죽음을 문제시할 경우, 그러한 문제 제기는 재고할 필요 없는 심각한 논쟁을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을 희생 제물로 확증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은 매우 난해한 신학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곧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인신 제사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예수가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이 자구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가, 아니면 속죄 제물이 가지고 있는 신학화된

* 한남대학교 전임강사, 구약학

상징 의미를 차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따라 그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신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이러한 질문에 서로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역사의 예수 스스로 혹은 그 후대의 저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희생 제물로 이해하여 표현한 것은 실로 과감한 신학의 상상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자 예수로서의 한 인간이 제물로 바쳐지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았다는 진술은 신약 성경이 기초로 하는 구약 성경조차 금지하는, 가증스런 행위로서의 인신 제사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레 20:2 등). 이러한 인신 제사는 이방의 신들이나 인간의 피의 제사를 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신이 인간을 제물로 원한 것(이삭의 제사)과 한 인간의 잘못된 맹세로 자신의 딸이 실제로 제물로 바쳐진 것(입다 딸의 제사)이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삭의 제사는 실현되지 않았고, 입다의 제물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긍정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구속의 효과를 낳은 인신 제사의 정신이 예수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의 신약 교수인 크리스띠앙 그라프(Christian Grappe)와 구약학 명예교수인 알프레드 맑스(Alfred Marx)가 공동으로 저술한 이 책(『파렴치한 제사?: 인신제사, 순교,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신구약 성경과 중간기 문헌 및 칠십인경에 나타난 인신 제사의 문제를 순교 및 예수 죽음의 문제에 연관시켜 새롭게 이해하려 시도한, 흥미로운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신학의 문제를 다룬다. 이 저자들은 이미 공동으로 작업한 책¹⁾에서 제사의 의미, 기능, 제물의 종류 등을 다룸으로써 제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자 축복의 통로(출 20:26)라고 정의함으로써 긍정의 의미를 강조했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사가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북한 면을 파헤치며 이러한 스캔들로서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의미를 이해하려 시도한다.

1) C. Grappe et A. Marx, *Le sacrifice : vocation et subversion du sacrifice dans les deux Testaments* (Genève: Labor et Fides, 1998).

1. 1부-구약 성경

이 책은 1부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 파렴치한-제목이 말하는 *scandaleux*-제사를 다룬다. 이는 순서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창 4:1-16), 이삭의 제사(창 22:1-19), 입다 딸의 제사(삿 11장), 갈멜 산에서의 엘리야의 제사(왕상 18:16-46),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사 52:13-53:12)의 본문이다. 이들 본문은 공통적으로 제사 행위가 낳은 부수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성 문제까지 거론 하도록 한다.

현대의 많은 창세기 주석가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제사의 요구와 상당 여부는 심리학자들²⁾과 문학가들³⁾에게도 많은 연구의 소재를 제공하였다. 성서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와 아랍어로 번역한 칠십인경 및 타르굼 역시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이해하기 힘든 본문에 가필함으로써 비단 번역으로서의 성경이 아닌 해석으로서의 성경의 역할을 감당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바 있다(17p.).

저자의 독특한 해석은 가인의 살인 행위를 오늘날 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먼저 저자는 가인과 아벨이 각각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사실 이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임을 밝힌다(15p.).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아벨의 제사만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러한 평등 공동체로서의 인류가 자신들의 상관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질투심이 결국 극단적인 살인의 결과를 낳았다는 통찰을 보여준다. 질투와 버림받음의 감정은 곧 경쟁자를 제거하도록 몰아간다는 것이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2) M. W. Ennis, "Cain and Abel," D. A. Leeming, K. W. Madden, and S. Marlan, eds., *Encyclopedia of Psychology and Religion 2* (New York: Springer, 2009), 121.

3) C. Husserr, *L'ange et la bête:Caïn et Abel dans la littérature* (Paris: Éditions du Cerf, 2005).

다음으로 저자는 이삭의 제사 문제를 다룬다. 가인과 아벨 제사의 문제가 가인이라고 하는 만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저자는 이와 달리 이삭의 제사 문제는 하나님 자신이 그 문제의 시발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실 제사로 비롯한 문제가 살인으로 귀결된 가인의 제사는 실로 충격적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삭의 제사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제사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29p.). 비록 창세기 22장의 화자는 이야기의 가장 첫머리(22:1)에서 이러한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중들에게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명시 자체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난해한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그의 앞 장에 견주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 아들 이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면,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이 하갈 및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창세기 21장과 22장의 화자가 등장인물들에 대하여 교묘하게 달리 서술하는 점에서-21장에서 이스마엘은 일관되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로 나타나고, 반대로 22장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등장하는 점 등-어머니(하갈)에서 아버지(아브라함)로, 여종의 아들(이스마엘)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삭)로, 하나님의 천사에서 야훼로 등장인물들에 대한 관점이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35p.). 이러한 해설을 통해 저자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며,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국 이 저자 역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는 일종의 폭력성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생명력은 이러한 성경 본문의 불가해성에서 비롯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입다 딸의 제사 문제를 분석한다. 창세기 22장에서 사사기 11장으로 본문이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자는 두 본문의 연속성을 발견하는데, 전자가 아들의 제사에 관련한다면, 후자는 딸의 제사를 말하며, 두 본문 모두 아버지의 제사 행위에 일언반구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그린다(50-51p.). 다른 한편 입다의 본문이 이삭의 제사 본문과 다른 점은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으로 부터 비롯되었고,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이러한 입다의 서원을 전도서 5장 1-6절이 비난하는 신중하지 못한 서원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으며(53p.), 이러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은 이미 구약 위경의 필로 위서(*Livre des Antiquité bibliques* 39:11)⁴⁾에서 비난 받고 있음을 소개한다. 즉, 적이나 위기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제사 및 서원에 달려 있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54p.).

넷째 장에서 저자는 갈멜 산에서의 엘리야의 제사 문제에 접근한다. 이 단락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지만 도대체 왜 엘리야는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는가?’의 문제로 귀결한다.⁵⁾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신봉한 바알과 그의 제사장들의 죽음을 신명기 및 신명기 역사서가 근거한 유일신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해석 방식이다. 이에 덧붙여 저자는 엘리야 이야기의 저자는 하나님과 거짓된 신 사이를 분별하며, 개인의 죄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불가분리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다(69p.).

마지막으로 저자는 고난 받는 야훼의 종의 본문을 통하여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아름다움이 정신의 고결함에 대해 가지고 있는

4) 이 책의 성서 해석 방법은 천사무엘, “필로의 위서에 나타난 성서해석,” 「구약논단」 6 (1999), 203-228 참조.

5) 이는 저자의 소논문 제목이기도 하다. A. Marx, “Mais pourquoi donc Elie a-t-il tué les prophètes de Baal (1 Rois 18, 40)?” *RHPR* 78 (1998), 15-32.

관념이 뒤바뀌고 있으며(73p.), 고난 받는 종과 읍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74p. 이하), 종과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의 관계(77p.), 종과 속건제와의 관계(79p.), 종의 정체(81p.), 종과 예수 그리스도(82p.)와의 관계를 차례대로 다룬다. 저자는 표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야훼 종의 사역은 실제로 포로기에 빠져 있는 백성들과 그 이후의 독자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2부-중간기 문헌과 신약 성경

제1부에서 저자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와 그 제사가 낳은 불가해한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제2부에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연속성과 함께 중간기 문헌 및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인신 제사와 순교의 문제를 다룬다.

제2부의 첫 장은 ‘가마 속의 세 히브리인, 의인들과 순교자들, 칠십 인경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칠십인경은 히브리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한다. 첫 장이 소개하는 세 본문은 (공동번역의 표기를 따르며) 아자리아의 노래(단 3:24-50), 지혜서 1:14-15; 3:1-10, 마지막으로 마카베오 4서이다. 개신교도들은 이러한 본문들을 외경으로 분류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관심의 영역 밖에 놓고 있다면, 사실 이들 본문은 유대교가 그리스 사상과 만나는 접점에 있다는 점과 기독교의 정치와 문화 배경이 그리스-로마 배경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 본문을 무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말할 수 있다.

본 저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들 본문은 일종의 순교 문학으로서 하나님께서 과연 의인들의 순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요구한다. 저자는 박

해 시대에 의인들은 순교를 선택함으로써 종국에 있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한다고 한다. 즉, 비록 하나님은 인간이 제물로 드러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 처한 신앙인들은 신앙의 빛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태동되는 본격적인 시점을 이러한 중간기 시대에서 찾고 있다(102-104pp.).

둘째 장에서 저자는 이미 구약의 제사 부분에서 다룬 아벨, 이삭, 입다의 딸의 제사 문제를 중간기 문헌의 빛에서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수의 죽음을 제사의 빛에서 해석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인신 제사의 관점으로부터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예수의 죽음이 희생 제물로서 이해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유월절의 제물로서 소개되고 있는 점에서도 그 궤를 같이 한다(145-148pp.). 계속해서 저자는 예수의 죽음을 구원사의 관점, 즉 속죄(고전 15:3 등)와 화목(고후 5:14-21 등)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의 죽음이 이러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넘어, 마카비 4서에 나타난 순교자의 죽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 가운데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171p.).

3. 평가

이 책은 신구약 성경 및 중간기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인신 제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비록 저자들은 많은 각주를 생략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지만, 인신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발생시킨 시점과 그 주제의 전개 및 발전을 한 순간도 놓지 않고 긴밀하고 긴장감 있게 논의한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 고백하는 희생 제물로의 예수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사색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희생 제사를 중간기 문헌을 거쳐 구약 성경의 빛에서 이해하려 할 때, 그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저자들이 말하고 있듯이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은 이를 철저히 금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그 이전 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희생 제물과 인신 제사에 견주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 시대에 진공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시대에 그 사상의 전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비록 동일한 하나의 주제이지만 한 명의 연구자가 수행하기 힘든 주제를 신, 구약 학자가 공동으로 작업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비록 인신 제사라고 하는 신학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철십인경과 타르굼, 콤파를 비롯한 중간기 문헌에 까지 그 소재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매우 단순하고 자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신학의 문제를 본문이 산출된 사회와 역사 정황에 따라 입체적으로 조망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저서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주제의 일관성에 비해 형식과 논술의 반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구약의 저자는 입다 딸의 제사 부분에서 필로의 위서를 단 두 쪽에 걸쳐 간략하게 서술하고 넘어가지만, 이는 중간기 문헌 부분에서 본문까지 소개하며 장황하게 설명되고 있다. 비록 이는 하나의 장을 할애하여 아벨, 이삭, 입다의 딸의 제사를 다시 쓴 성경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105-127pp.), 이는 책의 앞부분에서 시작하고 이미 끝난 논술에 다시 발을 담그도록 독자들을 이끈다는 느낌을 지우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만일 독자만 용인한다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독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글을 읽는 이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감지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저자들의 논지이다. 저자는 고난 받는 야훼의 종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 본문과 비교하는 가운데, 아사셀의 염소는 어떠한 폭력의 희생도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짐승이 단지 광야로 추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77p.). 피상적으로 독자들은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사실 구약 성경의 제사가 안고 있는 심층의 문제를 도외시한다. 과연 동물을 통한 희생 제물에는 어떠한 인간의 폭력도 개입하지 않는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쏟는 것은 이미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가? 더 나아가 아사셀 염소의 비폭력성을 주장하는 저자의 논지는 소제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성격과 식물 제사만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종말론의 의미를 주장한 저자의 이전 저술⁶⁾에서의 주장과 다소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서평자의 비평은 저자와 다른 생각의 차이 혹은 장황한 설명을 구차하게 여긴 저자의 글쓰기에서 비롯할 것일 수도 있다.

저자들은 성경이 인신 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방의 관습이라고 단정하는 이분법의 태도 앞에 그동안 더욱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은 예수 죽음의 의미를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성경의 하나님과 그와 동행하는 신앙인들의 결연한 신앙이 무엇인지 숙고하게 하며, 이러한 고민이 주는 아름답고 잔잔한 잔향을 선사한다.

* 접수일 2011년 8월 25일, 수정일 2011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10일

6) A. Marx, *Les Offrandes végétales dans l'Ancien Testament: du tribut d'hommage au repas eschatologique*, SVT 57 (Leiden/New York: Brill, 1994).